이기웅의 영혼도서관

광주·장흥 출신의 소설가 李淸俊을 추모함

〈이청준〉

이청준의 호는 '미백(未白)'이다. 그의 수필 작호기(作號記)에서 이 아호의 사연을 읽을 수 있는데, 일찍 머리가 하얗도록 세어버린 그가 노모(老母)께 큰절을 올릴 때마다 "절하지 말고 그냥 앉거라. 에미보다 머리가 센 자식 절을 받으려니 민망스러 못 당할 꼴이다" 하며 만류하시었단다.

그는 1939년 전라남도 장흥군 대덕면(현 회진면) 진목리 참나무골에서 나고 자랐다. 어릴 때의 그는 공부를 썩 잘했다. 교육환경은 열악했지만, 좋은 교사들로 하여 그 시절은 그에게 큰 문학적 자산이 되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그가 광주서중으로 진학한 것을 두고 주위에선, 진목리에서 천재났다고 떠들었다. 중학교 3년을 마친 그는 명문 광주일고에 들어가 학업을 마치니, 그가 장흥사람이되 광주사람이기도 했다.

가난한 시골뜨기 이청준이 처음 광주에 몸을 의탁한 곳은 친척 누님 집이었다. 장흥 어머니가 자루에 담아 마련해 준 게를 울러메고 광주 누님에게 선물로 드렸는데, 게는 이미 상할 대로 상해 자루를 받아들자마자 누이는 악취 풍기는 이 게를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는 일이 생겼다. 그 일로 크게 수모를 느꼈던 회고담이 있다.

"그때 그 쓰레기통에 내던져진 것은 그 썩은 게자루만이 아니었다. 나 자신은 물론 내 척박한 고향시절과 거기서 품어 온 남루하기 그지없는 꿈까지도 가차없이 내던져진 격이었다. 두고 봐라. 나도 이제부턴 이 누추한 시골내기 태를 깡그리 벗으리라. 이를 악물고 너희와 함께할 수 있는 부끄러움 없는 삶의 길을 열심히 배우고 익히리라. 너희 속으로 함께 섞여들어 그 유족(有足)하고, 자랑스런 도회인의 삶의 길을 떳떳하게 살아가리라. 그런 다짐 속에 거의 혼자 힘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대학 진학까지 해 올라갔다."

광주에서의 두 가지 일은 그를 이해하는데 기억해 둘 만 하다. 한 가지는, 광주일고 3학년 때 직접선거를 통해 학생회장으로 뽑힌 일이다. 자신의 의지로 출마했고 당선됐지만, 그때의 경험으로 정치에 대한 혐오증을 갖게 된다. 그래서인지, 고향 사람들과 집안에서는 법대(法大) 같은 세속적인 출세의 길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그같은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문과(文科)를 지망한 일이다.

또 한 가지는, 고향집이 남의 손에 넘어가고, 식구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됐다는 슬픈 소식을 들은 일이었다. 우리 문학사에 길이 남을 작품 '눈길'은 이미 남의 집이 된 옛집에서 어머니를 만나고 헤어지는 이야기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그는 고향 장흥을 오랫동안 찾지 않는다.

내가 이청준을 처음 만난 것은 1969년. 그때 나는 서울의 한 출판사에서 편집을 맡고 있었다. '퇴원', '병신과 머저리', '임부'를 비롯해 1966년에서 1969년 동안 발표된 이청준의 소설들을 열독(熱讀)하면서, 동시대 내 또래의 이 젊은 작가가 어쩌면 이런 놀라운 문맥으로 이야기를 풀어 나갈 수 있단 말인가, 탄복을 거듭하고 있었다.

그와 만나고 싶었다. 편집자의 본능이었다. 내가 일하던 출판사는 마침 출판의 새 지평을 열기 위해 계획을 세울 때여서, 내 심중에는 이청준의 초기 단편들을 묶는 일에 마음이 가 있었다.

한 식당에서 처음 만난 이청준의 화법은 그의 소설 문맥만큼이나 독특했다. 식사가 끝나 갈 무렵, 나는 이제까지의 그의 소설 전부를 한 권의 책으로 묶어 출판하자고 제의한다. 마치 한 청년이 마음에 두고 있던 연인에게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하고 프러포즈하는 모습이었달까. 책 내기 어려웠던 시절이라, 그는 크게 고무된 표정을 지었다.

그 뒤 우리는 열심히 만났고, 열심히 교정보면서 책을 만들었다. 이름하여 "李淸俊創作集 별을 보여드립니다". 문학평론가 김현(金光南)이 끼어들었고, 장정에 능했던 소설가 김승옥이 가세해, 책은 이제까지 단행본 출판의 형식과 규모를 훨씬 넘어서는 모습으로 태어났다. 이 책은 70년대 내내 국내 소설 베스트셀러 1위에서 5위 사이를 오르내렸다.

오는 7월 31일은 이청준의 5주기가 되는 날이다. 그가 세상을 뜨던 날부터 나는, 이제 그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 무엇이 있을까, 오랫동안 생각에 잠겨 왔다. 장고(長考) 끝에, 그를 위해 '불혹(不惑)의 기념출판'을 준비하기로 한다. 그 첫 창작집이 나온 지 42년, 불혹의 세월을 넘긴 오늘, 세로짜기 2단 조판의 옛 판에 가깝도록 복간(復刊)하는 일은 매우 뜻깊게 생각되었다.

이런 출판행위는 그저 단순한 복고적 의미만을 갖지 않는다. 이 복간의 의미를 두고 문학평론가 김병익씨는 "이 책은 이청준 문학의 첫 얼굴로서, 사십여 권에 이르는 그의 소설세계의 밑그림을 이루며, 그의 창작정신의 근원적인 자리를 보여 준다"고 말한다.

글쓰기와 책만들기는 '문학'이라는 예술을 온전한 존재로 성립시키기 위한 협업(協業)이다. 40여 년 만에 새롭게 단장되는 추모(追慕) 기념판 '별을 보여 드립니다'는 그동안 일궈낸 이청준 문학의 성취에 어울리면서 기념비적 토대를 이룰 것을 믿는다.

〈열화당 대표〉

종교칼럼

거짓에서 정직으로

김 재 영
광주성안교회 담임목사

얼마 전 WHO가 글로벌 헬스옵저버토리 조사를 통해 발표한 '범죄 종류별 국가 순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강도, 강간, 마약, 납치, 폭력 등 범죄는 5위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대단히 씁쓸한 결과도 있었다. 사기와 횡령에서는 각각 1, 2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와 있었던 것이다.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이것은 곧 거짓말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라 해도 과장된 말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회이기도 하지만, 또한 거짓말을 부추기고 있는 사회가 되어 버린 것이다.

독일의 역사학자 볼프강 라인하르트는 그의 저서 '거짓말하는 사회'에서 "인간은 하루에도 200번의 거짓말을 한다"고 했다. 먼저 거짓말 횟수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어떤 것들을 거짓말의 범주에 넣느냐의 분분한 의견이 있겠지만, 악의적인 거짓말이든 선의적인 거짓말이든 너무 많이 한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고 보니 내가 일상에서 의례적으로 하는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인사말도 사실은 '거짓말'이었다. 과연 진심으로 '안녕(安寧)'을 바라며 묻는 말이었던가? "네"라고 하는 대답 또한 실상은 그냥 상투적으로 내뱉은 말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매일 '거짓말하는 사회 속에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구 소련의 공산당 서기장이었던 후르시초프는 "정치인은 강이 없는 곳에도 다리를 만들어 준다"고 했다는데, 선거 때마다 남발하는 정치인들의 '공약(空約)'을 비꼬는 명언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지난 대선 때 후보들이 많은 공약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 공약이 이루어질 거라 믿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총리를 비롯한 장관, 고위공직자들은 인사청문회에서 불리한 질문에는 한결같이 "모른다" 아니면 "기억이 없다"로 일관했다. 그렇게 기억력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자리까지 올라왔으며, 그렇게 '머리 나쁜' 사람들을 그렇게 높고, 중요한 자리에 앉히려고 하는 임명권자의 의도를 도무지 모르겠다. 차라리 "잘못했다. 용서를 빈다"라는 사과 한마디만 해도 속이 끓지는 않으련만…. 공자는 "잘못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잘못을 고치지 않는 것이 잘못이다"라고 했는데, 우리 모두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경구이다.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이젠 이야깃거리도 되지 않는다. '선의의 거짓말(White lie)'이 아닌 몹시 나쁜 거짓말을 의식(죄의식)도 하지 않고 한다. 이 사회의 고질병은 '허상(虛想)'과 '허세(虛勢)'와 '허수(虛數)'라고 진단했던 어느 목사의 말씀이 생각난다.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거품이라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런 거품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어오고 있는지 말하지 않아도 안다.

어느 판사가 한 말이다. "재판은 거짓말과의 싸움"이라고.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위증죄가 16배, 무고죄가 39배, 사기죄가 26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당 사건 수로 보면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무려 50배 내지 100배 가까이 거짓말을 많이 하는 셈이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다는 점이다.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면 쉽게 거짓말을 하고 거짓에 대한 부끄러움을 잊어버렸다. 그러나 거짓말은 자기 정체성을 해치고, 사회의 신뢰관계를 좀먹고, 거짓말하는 사회(나라)는 결국 모래위에 집짓기와 같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바람이 한 번 불면 그대로 무너지고 만다.

우리는 '거짓은 악'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면 바보라는 소리를 듣던 시대는 이제 종식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정직은 국가 신용도, 나라의 존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후대에 정직함을 물려주는 선조가 되기를 바란다. 거짓으로 세워진 것들은 쉽게 무너지고 곧 드러나게 되어 있다.

옴부즈맨 칼럼

21세기 기후변화시대, 마을에서 해법 찾기

장 화 선
전국기후변화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새로운 세기가 시작된 지금, 지구촌을 위협하는 요소로 식량, 자원, 인구, 식수, 에너지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21세기 기후변화의 시대에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통한 기후변화대응과 자원순환을 통한 자원재활용에서 그 해법을 찾는 것이 수순일 것이다.

우리에게 별로 알려지지 않은 도시 아바나. 아바나는 쿠바의 수도다. 그들은 어려운 외적 환경을 시민들의 지혜로 풀어낸 곳으로 21세기 주요 위협요인인 식량과 자원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곳이기도 하다. 이들은 푸성귀를 수확하면 사람이 먹고 난 후 토끼-기니피그(남아메리카 페루산으로 원주민들이 주로 식용으로 키웠던 동물)-닭으로 이어지는 음식물 쓰레기 순환 과정을 통해 단백질 공급원인 고기를 얻고 부산물로 유기농법에 중요한 퇴비수단인 축분을 얻는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 20% 남짓이다. 농사를 짓는 농민은 1990년 대비 약 40% 수준인 290여만명(2011년)으로 급감했다. 농민 중 60대 이상 비중은 1990년 31.3%에서 2011년 63%로 두배 이상 급증했다. 이렇듯 농업인구 고령화와 석유제품인 화학비료와 화학농약에 농업을 의존하고 있다.

석유는 필연적으로 바닥을 드러낼 수 밖에 없다. 몇몇 에너지관련 기관에서는 이미 전세계 석유정점이 지났다고 발표했다. 바야흐로 기존 지하자원의 이용 및 개발방식에서 탈피해야 하는 탈 화석에너지로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대안으로 재생에너지가 부상하고 있다. 태양광, 바람, 지열, 소수력 등이 그것이다. 게다가 석유 같은 지하자원은 연소과정에서 지구온난화를 초래하지만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이용하는 데는 그렇지 않다.

영국의 작은 어촌도시 킨세일 생태공동체는 기후 온난화와 석유정점으로부터 지역사회를 지속시킬 수 있느냐는 생각에서 시작했다. 킨세일은 아일랜드의 고급요리 중심가로 유명한 곳이나 음식의 90% 이상은 다른 지역으로부터 수입된 재료를 이용하는 상황이었다. 그들은 외부 의존형 식량공급은 화석연료에 의해 만들어진 농약과 다른 화학물질 사용으로 결국 생명의 근원인 땅의 비옥도와 건강성을 떨어뜨리게 된다라는 문제의식을 갖는다. 결국 주민들은 지역에서 농산물을 스스로 생산했다. 잔디를 걷어내고 그 자리에 농작물과 과일나무를 심었으며 마을의 주차장은 녹지와 농지로 바꿔 식량을 생산했다.

서울 한복판 광화문 거리에서 벼농사를 짓는 등 도시농업이 활성화 되고 있다. 아울러 우리지역에 있는 푸른광주21협의회와 같은 추진기구에서 녹색아파트 프로그램을 통한 건물에너지 절약과 효율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눈여겨 볼 것은 교통부문에 있어서 올해 하반기에 전세계 녹색교통수단 축제장이 될 "녹색교통수원2013축제"가 수원시에서 개최된다는 사실이다. 특히 우리 광주는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교통부문의 발생량이 전체의 1/3에 이르는 점을 고려한다면 매우 관심이 간다.

광주에도 에너지 자립을 향한 에너지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그곳이다. 이 사무실에 최근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번달 전기요금이 1만원 정도라니 놀랍다. 또한 광산구의 햇빛발전소 사업도 이채롭다. 도시농업과 관련해서 한새봉 두레, 송화마을주민협의회에서 운영하는 도시텃밭, 동구주민들이 운영하는 동구두레텃밭 등 수없이 많은 도시농업 사례들이 생겨나고 있다.

최근 마을만들기 운동과 협동조합 설립이 붐이다. 이는 기존의 중앙집권적이고 대규모적인 통치방식의 폐해에 대한 성찰과 신자유주의 경제방식에 대한 대안으로 얘기된다. 결국 마을공동체 복원과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튼튼히 하는 것이 관건일 것이다.

위의 사례들은 우리 마을공동체와 사회적 경제 생태계 관련자들에게 의미가 크다. 비단 외형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지혜와 프로그램, 인적 역량의 중요성이 크다. 우리 지역의 상황과 역량에 견주어 진행하는 자치와 자율, 책임 그리고 구성원 모두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학즉불고, 學卽不固) 그리고 작은 것에서도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찾는 여유와 느림 그리고 성찰이 진정 필요한 시기이다.(소창다명(小窓多明) 사아구좌(使我久座).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8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 說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이제야 실현되나

민주당이 25일 내년 6월 실시되는 시·군·구청장 선거와 시·군·구의원 선거, 기초선거에서 후보자에 대한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최종 확정했다. 민주당은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안을 전체 당원 투표에 부친 결과, 투표대상자 14만7128명 가운데 51.9%(7만6370명)가 투표에 참가, 67.7%의 찬성으로 가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민주당의 이러한 결정은 새누리당이 지난 4·24 재보선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배제하고, 무공천을 공식화했던 만큼 여야가 어떤 식이든 합의를 이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18대 대선 때 양당 후보가 정당공천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한데다 국회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가 대세라는 점에서 기정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실시는 정당의 책임정치 구현, 여성과 같은 소수자 집단 및 참신한 인재의 정치 참여 확대 등이 그 취지였다. 또, 지역사회의 토호 발호나 현직 단체장 등 기득권층이 선거에서 유리해질 것이라는 폐단도 이유였다.

그러나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무엇보다 중앙당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기초단체장·기초의원 후보에 대한 공천권을 행사함으로써 지방자치 취지를 훼손하고, 돈 공천 등 폐해도 허다했다.

당선 뒤에도 다음 공천을 받기 위해 공천권을 쥔 지역 국회의원의 선거운동원 역할을 해야 하는 등 지방자치 근간을 위협함은 물론 정치불신의 요인이 되기도 했다.

여야는 선거법 개정협상 과정에서 지방의원의 경우 여성과 소수집단의 참여를 위한 할당제 실시 등 순기능 강화에 초점을 모아야 한다. 또한 반대 입장에 있는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 보완책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만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를 살리고, 정치에 대한 국민 신뢰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광주·전남 교통질서의식 전국 꼴찌라니

광주·전남지역 운전자들의 기초질서의식이 대단히 낮아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안전띠 매기, 횡단보도 정지선 멈춤 등 가장 기초적인 질서조차 지키지 않아 사고 피해를 키우고 있는 것이다.

최근 경찰청이 내놓은 '2012 하반기 교통법규 준수율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지역 운전자들의 일반도로 안전띠 착용률은 81.9%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13위였다. 전남지역도 84.2%로 하위권(전국 10번째)에 맴돌았다.

운전자의 옆에 앉는 조수석의 안전띠 착용률은 더욱 저조해 광주 59.4%, 전남도 63.1%에 불과했다. 광주·전남의 운전자 안전띠 착용률 역시 전년의 89.1%, 90.3%에 비해 더 낮아졌다. 고속도로 안전띠 착용률은 광주·전남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서해안고속도로의 경우 운전석은 전년보다 16.2%나 하락한 60.5%에 머물렀다. 조수석은 56.1%였고, 뒷좌석은 26.7%로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은 광주가 68.9%(전국 15위)로 1위인 경남의 91.8%보다 무려 22.9%나 낮은 최하위권이었다. 전남도 74.5%(11위)로 하위권 수준이었다.

이처럼 교통 기초질서가 지켜지지 않으면서 교통사고를 유발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2011년 526명이었던 광주·전남지역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난해 570명으로 늘어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교통사고는 개인은 물론, 사회·경제적으로도 큰 문제를 불러온다. 특히 개인의 잘못으로 인해 상대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운전자가 기초질서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 운전자 스스로 질서의식을 높이고, 경찰 등 교통당국은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으로 사고를 줄여야 한다.

無 等 鼓

로얄 베이비 효과

22일(현지시각) 오후 왕실 포고관이 영국 런던의 세인트메리병원 현관 계단에서 종을 세번 울리고, 왕자의 탄생을 알렸다.

"들으시오. 미래의 국왕을 환영합니다. 케임브리지공작(윌리엄 왕세손)부부 전하의 장자(長子), 왕위 계승서열 3위, 언젠가 우리를 통치하실 분. 신이시여, 여왕을 구하소서."

영국왕실에 29년만에 왕자가 태어나자 런던 시민들은 '아들이다(It's a boy)'를 외치며 환호했다. 103발의 예포가 울리고, 영국 전역에서 축하 세례가 줄을 이었다. 엘리자베스2세 여왕으로 보면 증손자이자 장손이니 영국 국민들의 기쁨은 어디에 비할 바가 못되는 것 같다.

윌리엄 왕세손과 부인 캐서린 세손빈 사이에 첫 아들인 로얄 베이비는 3.8㎏으로 20세기 이후 출생한 역대 왕손 가운데 최고 우량아라고 한다. 태어나기 전부터 왕자 이름을 알아맞추는 베팅이 일종의 국민운동처럼 번져 한 구좌에 1700원 하는 베팅액이 10억 원을 넘어설 정도로 인기다.

결국 로얄 베이비의 이름은 조지 알렉산더 루이스로 결정됐다. 조지는 엘리자베스2세 여왕의 아버지(조지 6세)를 포함해 역대 영국왕실에서 모두 6명의 왕이 사용한 이름이다.

로얄 베이비의 탄생은 영국 전 분야에 긍정적인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우선 경제적 효과만 하더라도 4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영국왕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도 개선돼 입헌군주제에 대한 지지율도 오르고 있다. 영국인들로부터 가장 사랑을 받았던 고(故) 다이애나 비가 사망한 직후 50%까지 떨어졌던 입헌군주제 지지율은 로얄 베이비 탄생으로 80%에 육박하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전 세계적으로 영국 이미지는 곧 '로얄 패밀리'라는 인식이 강하다"며 "어떤 광고 전문가도 로얄 패밀리보다 더 좋은 이미지를 창출하지는 못할 것이다"고 평가했다.

군주제에 찬성하지는 않지만 전통이 경제를 살리고, 온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것을 볼 때면 우리에게도 왕실이 있었다면 하는 바람이 든다.

/장필수 사회2팀장 bungy@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경 제 부	2200-663	경영지원국	2200-515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문화사업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F A X	222-8005〉
정 치 부	2200-612	체 육 부	2200-697	〈F A X	222-0195〉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광고마케팅국	227-9600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267〉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